

(미래정책연구실, 2009.10.05)

□ 농식품부 쌀값 안정 대책 발표

- 장태평 농식품부 장관은 "수확기 매입물량을 대폭작이었던 지난해의 247만 톤보다 23만 톤이 늘어난 270만 톤 이상을 매입해 산지 유통업체의 매입 심리를 살리고, 농가의 불안감을 불식시키는 것에 중점을 두겠다"고 밝힘.

□ 쌀 수급 전망

- 올해 쌀 수확량은 평년작 457만톤보다는 많지만 전년 수준 484만톤에는 못 미치는 465만 톤 내외의 풍작인 것으로 전망
- 소비량이 437만톤 수준으로 예상됨에 따라 약 28만톤 정도가 남을 것으로 예상

□ 수급대책의 주요 내용

○ 공공비축미 시장 격리

- 정부는 공급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의 공공비축미 매입물량 37만톤 중 학교급식, 군수용 등으로 기본적으로 방출해야 하는 공공물량 19만 톤을 제외한 18만 톤은 시장에 공매를 하지 않고 비축해 격리할 계획
- 나머지 잉여물량에 대해서는 농협중앙회를 통해 시장에서 매입해 격리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해 마련할 계획

○ 매입 기피 RPC에 자금 지원 중단

- 가격 하락 및 풍작 전망으로 지역농협이나 민간도정업체(RPC) 등 산지 유통업체의 매입 심리가 위축되어 있는 상황
- 농가에서 출하하려는 쌀이 최대한 매입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0

월 1일부터 시·군에 '벼 매입 지원센터'를 운영, 부당하게 매입을 기피하는 RPC 등에 대해서 매입자금 지원 중단

○ 벼 매입자금 지원 금리 인하

- 1조원으로 확대하기로 한 정부의 벼 매입자금 지원 금리를 수확기 매입량이 전년보다 15% 늘어나는 RPC 등의 경우 2%에서 무이자(0%)로 인하
- 거래형태는 수탁판매 방식을 대폭 확대해 매입량을 늘릴 예정

○ 수요확대 정책 병행 시행

- 정부의 재고 중 일부를 주정용(술) 등 쌀 수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방법으로 특별 처분
- 쌀가공산업 활성화를 통해 지속되는 쌀 수요 감소에 대응
- 군장병 생일 때 쌀 케이크 전달: 내년 1월 1일부터 생일을 맞는 하사 이하 군장병 47만여 명에게 1인당 1만원짜리 '쌀떡 케이크'가 전달
- 밀가루에서 쌀로 대체가 손쉽게 가능한 품목인 고추장, 떡볶이 떡 등에 쌀 사용 확대를 유도할 계획
- ※ '05년도 정부쌀 1kg의 판매 가격 인하: 1,446원 ⇒ 950원(30% 인하)
- 올 10월 중에 시·도별로 1개 학교를 선정해 쌀자장면, 쌀국수, 쌀빵 등을 급식으로 공급하여 학생들 반응을 조사한 후 대상 학교를 확대할 계획
- '아침밥 먹기 운동'의 지속적 추진: 아침밥에 어울리는 유명인을 홍보대사로 위촉, 내년부터 초등학교에 간편한 아침밥을 공급하는 시범사업 추진

○ 근본적인 수급관리 시스템 구축

- 생산자조직이 참여해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대형 쌀 유통회사를 육성하는 방안과 쌀 선물거래 도입하는 방안 검토